

본문: 창세기 11:27-12:4

제목: 만민을 위해 선택된 사람

1.

제 군대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주임원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그 부대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대의 모든 분야에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못된 시어머니처럼 병사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주임 원사실에서 무릎을 꿇은 채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 관련된 주제로 시비를 걸고 싶었나 봅니다. “야~ 기독교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만 다루는 종교인데 그걸 왜 한국 사람이 믿어야 하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못해 드렸습니다. 덕분에 얼차려 시간이 늘어나긴 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종교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성경을 왜 우리는 믿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된 민족을 부르셔야만 한 것일까요? 이스라엘보다 앞서 왜 아브람이란 늙으신 할아버지를 선택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11 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1 장까지의 내용은 인류의 원역사(原歷史, primeval history)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역사라함은 인류 문명의 모든 시기에 경험된 보편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역사 속에서 반복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을 기록한 역사라는 겁니다. 이 원역사에서 인간의 역사는 선하게 창조하여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지 않은 방향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과 함께 영적 세계의 반역과 천사적인 존재의 반역에 동조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3 장에 나오는 뱀과 함께한 인간의 반역은 초동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종말에 진압될 것이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남겨주기만 했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밟지만 그 뒷꿈치는 상하게 될 것이다. 뱀과 인간의 하나님을 대항한 구테타는 초동에 진압되지 않고 종말에 진압됩니다. 요한계시록 19 장-20 장에 가서야 ‘옛 뱀’이라는 이름으로 이 쿠테타 세력들은 무저갱(Abyss, 深淵)으로 집어 던져지게 됩니다. 이 인류의 시점과 종점을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입니다. 창세기 3 장에서 인간이 악의 세력과 동조하면서부터 인간의 역사는 순환적인 역사(Cyclical history)가 되어버립니다. 즉 아무런 목적(telos, eschaton)도 없이 순환하기만 하는 역사인 거죠. 자세히 말해서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이 순환합니다. 이러한 순환적인 역사의 과정에서 여러 유형(type)의 인류가 출현하죠. 아담형, 가인형, 네피림(Nephilim)형, 바벨탑형 인류입니다. 아담형 인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욕망을 좇아간 인류입니다. 가인형 인류는 자신의 가족을 죽일만큼 인내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인류입니다. 노아시대의 네피림형 인류는 자기 가족을 넘어 다른 민족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인류로 음란하고 폭력적인 인류였습니다. 창세기 11 장에 가서 인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이런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것은 죄와 심판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기존 인류에 대한 대안으로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계획(redemption plan)의 시작이었습니다. 죄와 악의 순환적인 역사 가운데 구속적인 역사(redemptive history)를 시작하고자 하신 겁니다. 이제 보편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선택된 사람과 선택된 민족에 의해 이끌어져 갈 역사인 겁니다. 보편적인 역사는 선택된 민족의 역사에 의해서 견인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2.

창세기 10 장과 11 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인류의 구세주가 여자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창세기 3 장 15 절).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중에서 뱀의 머리를 칠 구세주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족보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란 뜻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직접 이끌어 가시는데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1 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셈족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셈의 후손이었던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복이 될찌라(You will be a blessing)". 그런데 왜 하필 아브람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미 출산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한 75 세의 늙은이인 아브람을 불러서 이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려는 것인가요?

20 세의 팔팔한 청년이면 훨씬 수월했을텐데 말입니다.

창세기 1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절정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창조의 축복은 모든 생물 세계와 인류를 지탱시키는 근본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축복으로 끊임 없이 이어져 내려오던 족보가 아브람에 의해 멈출 위기를 맞습니다. 창조의 축복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람과 사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낱고 낱음의 수 없는 반복 속에서 사래의 불임은 갑작스런 불협화음과 같습니다.

아브람의 본토 친척 아비집의 족보가 이어지지 못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람은 자연적인 방식에 의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의 족보를 잇는 데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로 세워진 견고한 문화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 후계자를 낳지 못하는 부부는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게다가 아브람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달의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람은 달의 신의 저주를 받아 불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자신을 한탄했을 겁니다. 그의 삶은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기전의 아브람을 상상해 보면 그의 암울한 현실이 느껴집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 바깥에 방치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운명주의에 주저앉기에 딱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람을 저주로부터 부르고 계십니다.

3.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살고 있는 땅과 태어난 곳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명령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익숙한 곳을 떠나 전혀 낯선 땅으로 옮겨 가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부장적인 권위 하에서 세워진 엄격한 사회 체계를 말합니다. 이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과격한 요구였습니다. 나의 모든 안전망을 떠나야 하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혈연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연결고리를 끊으라는 요구는 정말 쉽지 않은 명령이었을 겁니다.

아브람은 그러한 모든 연대와 연결고리를 끊고 떠나는 창조적인 분리를 감행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앞선 탈출의 이야기가 바로 아브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그를 불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떠나는 대신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람은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탈출을 감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네 가지였습니다. 땅, 큰 민족, 이름, 임재와 보호가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 약속 중에 가장 놀라운 약속은 자기 세대에 대물림도 못하는 아브람을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람은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합니까? 그것은 그가 세계 만민의 복이 되기 위해서 입니다. 세계 만민의 복이 되기 위해 아브람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의 결속에서 분리되어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한 개인을 지탱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씨족 사회를 떠나라는 명령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아브람으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의 방식에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혈(blood)과 육(body)의 유대로 무의미하게 순환되어 온 인류의 원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의 유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건설된 나라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과 인종 그리고 이념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믿음 위에 세워진 새로운 나라입니다.

우리 말 성경은 우리의 어순에 따라 해석이 되어 있지만, 3 절의 목적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목적절에서는 아브람을 복과 저주의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타락한 인류 전체를 한꺼번에 돌아오게 할 수 없다면, 한 사람을 통해 이뤄지는 선택된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전 인류와 교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 선택된 민족을 상대로 교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들과 교섭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생학적인(eugenics) 실험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씨앗 하나로 시작하여 온 세상에 좋은 열매를 퍼뜨리는 실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된 아브람이라는

씨앗 하나를 하나님은 집어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사람들이 볼 때 싹을 틔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보잘 것 없는 씨앗인 겁니다.

4.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망가뜨려 놓은 아담형 인류의 대안으로 아브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람을 축복한다는 말은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길을 따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브람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약속을 따라 가기로 결정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라는 뜻은 아브람이 따라간 믿음과 순종의 길을 반대하는 자들은 적대시하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 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저번에 칼럼에도 제가 한 번 쓴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구약성경의 한 줄 요약은 "출애굽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은 몸과 정신이 이집트로부터 분리되고 탈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가치관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체제 아래서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박차고 탈출하는 결단이 출애굽입니다. 왜냐면 이집트의 파라오 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의 원형적인 모습이 아브람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75 세로 늙어가는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을 믿고 떠나는 결단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결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분리와 탈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의지해왔던 가치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의미를 다른 이들보다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국으로부터 떠나 있고 가족들로부터 분리된 느낌 아니까요. 공교롭게 오늘이 한국에서 설날 연휴입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이 더욱 생각나잖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복이 되라고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이 아닐까요? 이민 생활이 30년이 넘으신 분에게 여쭙보았습니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냐구요. 그랬더니 내 가족이 여기에 살고 있으니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그러시더군요. 한국에 있는 가족도 가족이지만 그들과의 유대는 희미해졌고 오히려 이곳에서의 삶이 익숙해진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딱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익숙했던 가치관에서 떠날 때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너무나 낯설고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하지만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성취되고 순종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 기쁨에서 떠나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설날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약속한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5.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주받은 인생 마저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그 저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75세의 불임 부부였던 아브람과 사라는 저주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임 가운데 슬픔의 세월을 살아온 이 부부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모험스러운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힘 입지 않고는 우리는 옛 삶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전환점을 줄 만한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가득한 저주와 불협화음들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조우할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명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닉 부이지치 같은 사람들은 팔다리가 없는 너무나 좋지 않은 조건에 살아갑니다. 그가 운명주의에 빠져 살더라도 어떤 이도 그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밝은 얼굴과 삶의 태도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죠. 헬렌 켈러는 태어난지 19개월만에 시력과 청력과 말을 잃어버리는 3중 장애를 겪습니다. 하지만 설리반 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대학에 가게 되었죠. 87세의 나이에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장애우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말씀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하다"는 고린도후서

4:16-17 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명주의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새로운 미래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닉 부이지치나, 헬렌 켈러처럼 우리 삶에 드리운 저주스러운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무질서를 하나님이 수습해 가시는 시작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은 무질서한 창조 이전의 세계로 회귀하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노아 이후, 인류는 하나님을 향해 더 강한 적대감과 반항을 통해 이 세상을 무질서 속으로 몰아가고 있었죠. 그 것을 수습하기 위해 하나님은 히든 카드를 꺼내 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잘 것 없는 한 노 부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새롭고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 인류에 소개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막혀버렸던 복의 댐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들도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느냐입니다.

아브람처럼 나의 예전의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서 분리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아직 목적 없이 반복되는 창세기 3장에서 11 장 사이 어디에서 헤매고 계신 겁니다.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대안적인 인생의 목적은 복이 되는 인생입니다.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복을 누리는 인생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의 씨앗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많은 이들이 따 먹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요 복의 유통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의 이웃들의 삶에 많은 열매들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이 되는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주의 그늘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 짓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